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6호(1955년 6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9년 3월 30일(토)

회장단 새로 구성 · 장학재단 설립 및 전국대회 중점추진

대중회는 2019년 2월 15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1)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새로운 회장단 구성안 4) 유공자 표창 수상자 선정안 5) 2019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 및 「청송심씨전국대회」개최 일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다.

새로운 회장단은 봉익공, 악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수부윤공, 안효공종회 회장 등 7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당연직 회장단 및 지파종회 등과 협의하여 새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는 같은 날 개최하기로 하되, 내년부터는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 청송심씨전국대회를 금년도 10월 시조 추향일에 맞춰 청송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열린 대중회발전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펼칠 중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발

전위원회는 첫째, 금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임원진 구성과 기금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둘째, 전국 규모의 송조돈목(崇祖敦睦)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청송심문의 명

성과 자긍심을 대내외에 드높이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며, 셋째, 모바일 정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보관리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장년·대학생·주부 기자단 등을 적극 모집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장단회의



발전위원회의

전국 규모의 송조돈목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청송심문의 명성과 자긍심을 대내외에 드높일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행사개요》

- ◆ 일 시 : 2019. 10. 5.(토) 오전11시
- ◆ 장 소 : 청송 소헌공원(찬경루)
- ◆ 참석인원 : 3천명 목표
- ◆ 행사목적

조상을 숭배하며 일가 간 정을 두텁게 하고 화목하는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실천에 옮겨 청송심문의 명성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한편, 선대의 훌륭한 업적과 전통이 후세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

- ◆ 행사내용 (예시)
 - 시조 추향봉행 : 소헌공원(찬경루)에서 시조묘소까지 도보 행진(3km)
 - 중대묘소, 만세루, 경의재, 송소고택 등 유적지 탐방 및 주왕산 등반

- 장학증서 수여, 뿌리교육, 기타 이벤트 행사
- ◆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10명 내외)
기획, 행정, 홍보, 재정 분야 등
- ◆ 지역별 책임자 선정 (시도별 50명 내외)
 - 지역별 홍보, 참가자 통솔, 행사질서
 - 지·파종회 임원, 청장년회, 대학생 등

※ 참고사항

본 행사는 추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준비위원 또는 지역 책임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종인께서는 대중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등에 대한 일가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송심씨대중회 제67회 이사회 및 제49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청송심씨대중회 정관규정 제1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임원과 종원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12일 (금)
이사회(10:30-11:30), 총회(11:40-12:40)
- 장 소 : 성균관컨벤션웨딩홀 (구 유림회관,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전화 : 02-744-0677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회원자격 : 청송심씨 성인(남·여)
- 지참물 : 신분증 (청송심씨 외 참석 불가)

이사회 부의안건

-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정관 일부개정제에 관한 건
-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건
- 기타사항

총회 부의안건

-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제에 관한 건
-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건
- 임원 선임에 관한 건
- 기타사항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8)

지혜롭고 너그러운 소헌왕후

조선 제일의 국모가 되다



심후섭(沈厚燮)

총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교육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애야, 너는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를 보게 되면 어떠한 말을 할 것 같니?

우리 청송심문(靑松沈門)이 배출한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는 역대 많은 왕후 중에서 가장 어린 왕후로 이름 나 있어. 소헌왕후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부인이야. 세종대왕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준 분이 바로 소헌왕후였어.

소헌왕후의 할아버지는 청성백 덕부(德符)이시고,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내신 온(溫)이셔. 소헌왕후는 세종대왕이 임금이 되기 전 충녕대군으로 있을 때에 그의 배필이 되었는데, 그 뒤 충녕대군이 조선 제4대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자 마침내 왕후가 되었어. 소헌왕후가 충녕대군의 비(妃)가 된 데에는 숙모였던 경선공주(慶善公主)의 역할이 컸다고 해.

경선공주는 태조 이성계의 딸로서 태종 이방원의 누나였어. 경선공주는 덕부 할아버지의 여섯째 아드님인 청원군 종(靑原君 淙)에게로 시집오셨던 거야. 종(淙)은 온(溫)의 동생이었으니 소헌왕후로 보면 경선공주는 숙모가 되는 것이지.

경선공주가 질녀인 소헌왕후를 겪어 보니 매우 지혜롭고 또 따뜻하여 당시 왕자로 있던 친정 조카 충녕대군의 배필감으로 추천하였다고 해.

소헌왕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역사(歷史)의 기록도 있고 민가에서 전해지고 있는 야사(野史)도 많아.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이지.

소헌왕후가 처녀로 있을 때의 일이라. 집안 식솔들과 함께 밭에 뽕을 따러 갔는데 마침 이웃 고을 원님이 이 밭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원님의 행차라 일꾼들이 모두 나와 밭둑에 엎드렸는데 밭 안쪽에 있는 소헌왕후는 그대로 뽕을 따고 있었다. 모두 숨죽이고 있으려니 밭 안쪽에서 뽕을 따는 소리가 더욱 푹 하고 들려왔어. 그러자 원님 호위대장이 밭 안쪽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

“거기 누구인가? 원님이 지나가시는데 나오지 않는 자가! 이리 썩 나오지 못할까?”

그래서 소헌왕후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 그러나 소헌왕후는 조금도 꿀림이 없이 당당하게 말했다.

“원님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 행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누에가 빨리 뽕을 먹지 않으면 굶어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누에를 잘 키워야 합니다. 원님이 지나가시는 것도 모르고 뽕을 따는 것이 그렇게도 야단을 맞을 일입니까?”

이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

“과연 옳은 말이로다.”

그러하여 나중에 이 원님이 나라에 왕자비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 그만큼 소헌왕후는 어릴 때부터 판단력이 빠르고 담대했다고 해.

소헌왕후가 왕자비로 추천되어 궁궐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라고 해. 여러 대신의 집에서 추천되어 온 처녀들과 함께 면접을 보게 되었어. 방에 들어가니 방석 모서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방석이 놓여있었어. 모두 자기 아버지 이름이 적힌 방석을 찾아가 그 위에 앉았어. 그런데 소헌왕후는 방석을 찾아 공손한 태도로 밀어두고 그 뒤에 다소곳이 앉았어.

면접관이 물었어.

“그대는 어찌하여 방석에 앉지 않는 것이오?”

“네, 방석에 이름을 새긴 것은 누구의 자식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방석을 찾았으니 제 신분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방석이라 하더라도 아비의 이름 자(字) 위에 어찌 올라왔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소헌왕후는 또 높은 점수를 받았어.

잠시 뒤, 면접관이 건너편 궁궐 지붕을 가리키며 물었어.

“저 지붕에 기와의 골이 모두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소?”

그러자 모든 후보들이 지붕의 골을 세느라 눈을 찡그려 가며 법석을 떨었어.

그런데 소헌왕후는 가만히 앉아있었어.

“아니, 그대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이오?”

“네, 지붕의 골이 몇 개인지는 곧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비가 내리면 골에서 떨어진 물이 처마 밑에 그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걸 세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잠시 뒤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소?”

“네, 저는 무명옷을 입고 밭에서 일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옷에 땀이 자주 땀니다. 날이 맑으면 소금기 때문에 옷이 꺼칠꺼칠해지지만 비가 올 때에는 습기가 많아져서 옷이 누글누글해집니다. 그 정도를 보고 언제 비가 올 지를 가끔씩 짐작합니다. 오늘 마침 무명옷을 입고 왔기에 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잠시 뒤에 비가 쏟아졌어.

“으음!”

면접관은 곧 이를 태종에게 알렸고, 마침내 소헌왕후는 왕자비로 간택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소헌왕후는 이처럼 지혜로웠어. 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매우 너그러웠어. 친정아버지인 온(溫)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음에도 누명을 씌운 박은(朴崑) 대감을 용서하였다고 해.

당시 박은은 태종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태종이 이를 이용하여 박은에게 충동질하여 온 할아버지를 모함하도록 하였던 거야. 그 전까지는 온 은 박은과 나랏일을 서로 의논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이 지냈어.

온할아버지 당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기 전에 박은에게 조정의 일을 부탁할 정도였어. 그런데 박은은 온 할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명을 벗겨주는 커녕 도리어 가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거야.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박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자 임금이었던 세종은 조정의 대신이자 아버지 태종이 아끼는 신하인 박은에게 조문(弔問)하였어. 이에 박은은 장례를 마치고 인사차 세종을 찾아왔는데 소헌왕후와 먼저 마주치게 되었어.

그러자 오금이 저려진 박은이 진땀을 흘리며 소헌왕후께 머리를 조아렸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박은이 소헌왕후의 아버지 온(溫) 할아버지의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었어. 그러자 소헌왕후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다.

“모든 게 다 나라를 위한 일이겠지요.”

소헌왕후의 가슴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대국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풀어 주었어.

이로써 박은은 더욱 어쩔 줄 몰라 하였어.

이러한 소헌왕후를 보고 사람들은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때, 소헌왕후가 괜히 조선 최고의 국모(國母)라는 칭찬을 듣겠니? 그만큼 큰 인품과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었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처럼 훌륭한 선조들의 가르침을 널리 본받기 위해서인 것이야. (다음 호에 계속)



여주 영릉(세종대왕과 소헌왕후 합장묘)

고향을 떠난 지 420년, 그래도 심문의 ‘뿌레기’는 강했다

심규선 인터넷정보편집위원장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도공의 후손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 명가인 사쓰마야키(薩摩燒)의 14대 종가 심수관(沈壽官) 씨가 일본인 2001명과 함께 다음 달 한국을 찾는다. 내달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일직능문화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 심 씨는 이 대회와 일본 측 실행위원이다.

한일직능문화교류회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을 초 기획했다. 필자가 동아일보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2001년 8월에 쓴 기사다. 벌써 18년이나 지났지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4대 심수관을 처음 만나던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다.

명함을 드리자 그분은 명함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10여 초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무네가 굿토 시마스(胸がぎゅっとします)”라고 했다. “가슴이 콕 막힙니다”라는 뜻이다. 왜 그랬을까. 내 명함에 있는 ‘沈’이라는 글자 때문이다. 일본으로 끌려간 지 400년이 넘었지만 ‘뿌리’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내 가슴도 먹먹해졌다.

2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일가 20명(일부 가족 포함)이 일본 가고시마로 심수관 도요를 방문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계기는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기념해 가고시마 여명관에서 열리는 ‘화려한 사쓰마야키전’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방문단이 도자기보다는 도자기를 만든 심수관 일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하다.

도착하던 날 저녁, 방문단은 15대 심수관 당주를 초청해 일행이 머무는 가고시마 시내 호텔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이때 심상정 방문단장은 심수관 일가가 이역만리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문의 자긍심을 지키며 존경받는 예술가로 우뚝 선 데 대해 경의를 표했고, 15대 당주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잊지 않고 멀리까지 찾아와 관심과 격려를 해주는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15대 당주는 그날 두 가지 사실을 밝혀 방문단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조선에서 끌려온 도공 집안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당시의 성(性)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심가가 유일하다는 것과 아들이 이미 도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방문단은 다음 날 오전 가고시마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 가는 히오키시 히가시이치키초(日置市東市來町)의 심수관요를 방문했다. 먼저 ‘沈家伝世品收藏庫(역대 심가 박물관)’를 둘러보고 1598년 남원에서 끌려와 400년 이상 뿌리와 예술성을 지키면서 일본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실감했다. 작품 하나하나에 치열하고 눈물겨운 사연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15대 당주는 박물관은 물론이고 작업장과 전시실 등도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두 개를 소개하고 싶다.

하나는 여행 둘째 날 심수관 도요를 방문하고 오후에 전시회를 관람할 때의 일이다. 고교생들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마침 해설자가 12대 심수관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과 같은 집안으로 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20명이 한국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인 것을 알고는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감복했다. 옆에 있던 일본인 할머니 2명도 놀란 표정으로 “이 학생들은 도쿄대학에도 많이 들어가는 가고시마의 명문고교생들”이라면서 우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가고시마 주민들은 이미 심수관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에피소드는 둘째 날 오후 검은모래 찜질로 유명한 이부스키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을 때의 일이다. 참가자들이 한마디씩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심재작 일가의 따님인 하은 씨 차례가 왔다. “아버지가 늘 ‘뿌레기’

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여행에 참석해보니 심가는 정말로 ‘뿌레기’가 깊은 것 같다.” 좌중에서 웃음이 빵 터졌다. ‘뿌리’가 아니라 ‘뿌레기’라는 사투리가, 그것도 갑자기 젊은 여성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의외이자 정겨워서일 것이다.

이번 여행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배우고 느낀 것이 많다고 했다. 15대 당주가 10월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가칭)’에 참석하면 좋겠다거나, 심문의 젊은이들이 심수관 도요를 견학하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번 여행은 성공이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심수관 일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뿌리를 송두리째 뽑혀본 적도 없고, 외롭고 무서운 곳에서 목숨 걸고 살아본 적도 없는 여러분은 심문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행은 함께 갔지만 대답은 각자 내놓아야 할 것 같다.



- ① 15대 심수관 당주가 2월 13일 오후 가고시마 선로알 호텔에서 열린 만찬모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② 2월 14일 오전 심수관요를 방문한 일행이 「역대 심가 박물관」을 관람하고 나와 기념촬영을 했다.

三韓國大夫人 移葬(삼한국대부인 이장) 기문

부인의 묘가 처음에는 용인에 공과 다른 무덤에 있더니 세종조에 영응대군이 여러 해 동안 이상한 병이 있어 세종이 중국의 황제에게 청하여 태의(太醫)를 보내와 치료 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는데, 태의가 원래 지리(地理)를 보는데 밝아 이것은 산화(山禍)이므로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 하고, 태조의 건원능(建元陵)과 태종의 헌능(獻陵)을 보고는 모두 길지(吉地)라 하고, 외가

심씨의 무덤을 보았고 또 공의 무덤을 보고서도 좋다고 하더니 부부인 묘를 보고서는 이 산이 좋지 않다 하니, 세종이 이장할 것을 청하여 태의가 경기도 안성의 동쪽 가미촌(嘉味村) 임자원이 좋다고 하니 임금이 명령하여 부인의 묘를 이장하였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안효공 종손의 가장 중에 있었으므로 여기에 실어놓고 다시 상고할 때를 기다린다.>

부인에게 직첩을 준 것은 세종조에 부인의 생시였고, 공이 복관(復官)된 것은 문종조였으므로 부인의 묘만 일품(一品)인 외명부(外命婦) 직으로 예장(禮葬)하였고, 공의 묘는 처음 장사지내는 예로하고 뒤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삼가 안효공의 행적을 살피건대 경태원년(景泰元年) 조중(條中)에 양위(兩位)를 병장(並葬)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당초에 공과 합편한 것이 분명하다. 처음에는 산의(山義)에 장사 지냈다가 안성으로 이장한 것을 또한 알수있다.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상징 沈象奎(심상규, 1776~1838), 南漢山城을 경영하고 國政을 이끈다(2)



심재석

정보편집위원
문학박사

⑤ 표절사(表節祠)현판을 쓰다 : 임진왜란 때 삭녕에서 전사한 경기감사 충장공(忠壯公) 심대(沈岱)에게 정조는 삭령군에 있는 전망지(戰亡地)에 옛 건물을 수리하고 해마다 제사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사당의 현판은 입시한 각신(閣臣)에게 쓰도록 하였으나, 그 각신은 바로 심대의 족종손(族從孫)인 심상규였다.

⑥ 평양의 인현서원(仁賢書院)과 보통문(普通門) 중수기 작성 : <인현서원 문루 중수기>는 두실이 54세 되던 1819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작성되었다. 이 무렵 인현서원의 정문인 개래문(開來門) 위의 문루(門樓)가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지었는데 두실에게 기록을 써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실은 평양 유생들의 말과 행실이 바르다고 칭송하면서, 기자(箕子)가 와서 조선의 풍속이 좋아지고 공자를 숭상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찬양하였다.

평양 팔경의 하나인 <보통문 중수기>에서는 입란 때 평양성을 수복하느라 온 성이 불에 탔어도 보통문은 온전했다면서, 그 뒤 여러 차례 수리하였고 최근에도 수리하였는바 평안도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였다.

⑦ 흥경래 난 진압 : 1811년 8월, 병조판서가 되어 '흥경래 난'을 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판 재직 시에 일어난 대 사건이므로 그 진압에 주력 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⑧ 국왕의 교과서 「만기요람萬機要覽」은 : 심상규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재용편(財用篇)과 군정편(軍政篇)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두실상공은 순조(純祖)가 정조의 정책과 업적을 계승해 가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국가 재정과 군사업무를 파악하도록 주청하여 즉시 편찬이 이루어 졌다.

순조가 편찬 책임자로 심상규를 임명한 것은 두실이 오랫동안 비변사유사당상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전곡(錢穀), 갑병(甲兵)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趙寅永, <沈象奎諡狀> 「雲石遺稿」卷20). 18세기의 제도와 정책은 19세기의 국왕에게 전범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실상은 「만기요람」의 편찬과정과 내용에서 알 수 있다(문광균, 「역사와 현실」107, 265쪽).

⑨ 원상(院相) : 원상이란, 어린 왕의 즉위로 섭정이 이루어질 때 승정원에 나와서 왕을 보좌하고 6조를 통할한 관직이다. 두실은 순조 사후 원상을 맡아 국가의 대소사를 처리하였다.

⑩ 종묘 증축 : 70세 되던 1835년 헌종 때, 왕실 재각인 '종묘(宗廟)'를 증축하고 수리하는 <종묘증수도감제조>의 책임을 맡아 완수하였다.

5. 심상규의 저택과 서재 가성각(嘉聲閣)

① 너무나 화려해 문제가 된 저택 : 영의정 심상규의 저택은 경복궁 앞 '미국대사관 숙소 자리'로 종로문화원 공터 자리다. 두실은 집에 서양의 자명종을 비치하고 식사시간과 산보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했다고 한다. 집이 너무 화려하여 대사간 임준

상이 "집의 높고 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기이하고 아름답기는 인간의 교묘함을 다하였다(「純祖實錄」27/3/23)」고 진서(陳書)하였다. 이에 두실은 시골로 낙향하게 되었고 세자의 대리청정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천(利川)에 머물다 고향 장단에서 7년 여를 지낸 후 우의정으로 복귀하였다(「純祖實錄」33/4/26).

② 조선 최고의 장서를 소유한 서재 '가성각(嘉聲閣)' : "심상규는 흥한주가 조선 최고의 장서가로 지목한 인물이다. 그의 부친 심념조(沈念祖 1734~1783) 역시 대단한 장서가로서 만권에 이르는 서적을 수장하고 있었고, 정조의 지우를 입어 함재(涵齋)라는 호(號)를 하사 받기까지 하였다. 흥한주(洪翰周, 1798~1868)는 심상규의 서재를 "바깥사랑채에서 구부러지는 곳에 비스듬히 두실이 있다. 이곳을 지나면 난간이 둘러진 당에 '가성각(嘉聲閣)'이란 편액이 붙어 있는데 웅방장이 80세에 쓴 것이다. 그 뒤가 속당(續堂)이다. 여기에 4만권의 서적을 경·사·자·집으로 나누어 수장하였다. 중간에는 영당(影堂)을 만들어 그의 아버지의 초상을 봉안하였다"(「西洋鳴鐘」 「智水拈筆」)고 하였다. 최고의 중국식 건물을 지어 놓고 당대 중국 최고의 학자로부터 글씨를 받아 편액을 걸었던 것이다.

③ 역애오려(亦愛吾廬) : 가성각 동쪽에 있던 건물이다. 이 건물의 담장에는 구멍을 내고 문을 만들어 왕래할 수 있게 하였다. 우정(隅亭)이라는 정자 바깥에는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다. 이렇듯 심상규는 가성각을 중심으로 문인들과 교류를 하였으며, 이곳은 당시 서울의 이름난 사교장이었다(박철상, 「서재에 살다」).

두실은 <題亦愛吾廬 詩>에서 "쇠하고 지친 몸 무엇으로 즐길까 / 초당에 깨끗한 인연 말기었네 / 숲의 향기는 절로 속됨을 끊고 / 산 빛은 사람을 깨우려 하네 / 바둑알을 흠은 꽃은 판에 넘치고 / 서늘함에 조는 버들 이웃에 가득하네 / 기거함이 자못 뜻에 맞으니 / 마음과 눈은 기뻐서 늘 새롭네."(「斗室存稿」卷2)라고 읊었다. 내 집을 사랑하는 두실의 진심이 잘 드러나는 시이다.

④ 매화(梅花)를 극진히 사랑한 심상규는 : 남한산성에 옥천정을 조성한 뒤 매화 3천 그루를 심었다고 한다(李尙迪, 「恩誦堂集續集詩」卷28). 두실은 "우리 집 두실은 매화가 좋다(「我家斗室梅花好」 「斗室存稿」卷2)"고 할 정도로 애호가였다. 두실은 '한자를 넘지 않는 작은 매화를 자기(磁器) 필통에 심어' 놓고 완상하기도 하였다.

6. 심상규의 유고(遺稿)

① 「두실존고(斗室存稿)」 : 손자인 희순(熙淳)의 교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원집과 '척독(尺牘)을 합부(合附)한 것으로, 원집 권1~권4는 시 494제가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43세부터 67세까지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일상적 편지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두실척독斗室尺牘」: '척독'은 편지이다. 두실 척독은 '짧은 편쪽 속에 간결하고 경쾌한 자신의 정지(情志)를 강조하여 실용성과 문예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강혜선, 「돈암어문학」30, 307쪽). 동갑내기 친구인 김노경에게 보낸 편지는, 수사적 기교를 쓰지 않고 간결한 문체로 일상적 사연을 담

고 있다. "나이가 늙어 갈수록 봄은 더욱 재촉해 가니, 올 해는 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곧 이 봄도 다 가겠지요. 막힌 회포 서글퍼 더욱 비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깨가 갈 듯이 아파 이미 고질병이 되었고, 근래에는 눈에 백태가 끼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소식을 대략 갖춰 쓰기 어려워 이만 줄입니다. 바라건대 살펴보십시오(「西堂崇鑑」 「斗室存稿」)"

7. 시무 6조

1834년 헌종이 즉위하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일 6조목>을 올렸다. 영의정 심상규 등이 헌종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한 일을 간략하게 진달하였다(「憲宗實錄」 즉위년/12/16). 그 여섯 가지는 ① 기거(起居)를 삼가 할 것 ② 강학(講學)에 부지런 할 것 ③ 궁위(宮闈)를 엄하게 할 것 ④ 행문(幸門)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을 것 ⑤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살필 것 ⑥ 재용(財用)을 절약할 것 등이었다.

8. 심상규의 거사비(去思碑)를 되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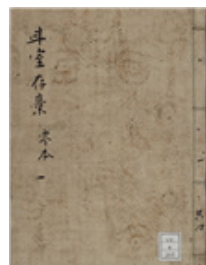
두실상공은 명석한 두뇌와 비상한 노력으로 영의정까지 올랐다. 그의 부친 심념조(沈念祖)는 사간원 대사간,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고 규장각 각신(閣臣)으로 정조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다. 애석하게도 부친이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순직(殉職)하였으니, 가족들의 상심은 어떠하였으랴.

이러한 상황은 두실로 하여금 맡은바 직무에 더욱 최선을 다 하는 자세를 갖게 하였을 것이다. 국왕과 만나는 조정에서 매번 중후하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두실은 "음성이 그 몸보다 커서 王에게 아뢴 때마다 못 수레가 굴러 가는듯한 굉음(轟音)이 울렸다."고 적고 있다(「憲宗實錄」4/6/20). 그 외모를 짐작 할 수 있는 구절이다. 남북왕래가 수월해져 풍덕군 마루담리에 있는 두실 상공의 묘소에 참배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두실이 살았던 19세기는 우리 역사상 집권 세력이 극도로 축소되어 가문이 정치의 중심에 섰던 '세도정치(勢道政治)' 시기였다. 국정을 이끌던 두실상공 개인이 그 잘못된 정치 구조를 온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정약용처럼 개선을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는 당시 핵심 권력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보았던 옥천정(玉泉亭) 바위의 시처럼 마냥 한가하기에는 당대의 백성들 고초가 자심하였다. 하층민의 실상에 대한 절실한 공감과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바였다. 청송 심문은 명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감도 컸었다. 이런 점에서 후손들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우리의 시대적 아픔도 해결코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한산성) 심상규의 '옥천정' 詩가 새겨진 바위 앞에서 (좌에서부터 언태 총무이사, 갑택 문화이사, 필자)



두실존고

구한말 13도창의군 의병 3분견대장 심상우(沈相禹)의병장

연천 출신의 유일한 의병장 심상우

심상우(沈相禹) 의병장은 청송심씨(靑松 沈氏) 안효공(安孝公) 심운(沈溫)(세종대왕의 장인)의 18대손으로 1883년(계미년)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 부친 심응택(沈應澤)과 모친 양성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 심성택에게 후손이 없자 심상우는 어린 시절부터 작은집으로 양자를 가게 된다. 작은 어머니 양성 이씨(陽成 李氏)의 손에서 자란 심상우는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이었으며 애국심이 남달리 강했다고 한다.

심상우는 소년시절 왜놈들이 가르치는 왜놈의 학교에는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보통학교(소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로의 입학은 거부하고 독학을 하였으며 향교를 다니면서 한학공부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항시 일본에 반감을 품고 때를 기다리던 심상우는 마침내 일본에 반기를 들 기회가 찾아 왔다.

당시 국제 정세와 국내정세로는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이어 군대가 해산되자 왕산 허위선생은 13도 창의군을 모집하고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진격하였으나 사전에 기밀이 새어나가 일본군은 동대문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허위 부대는 뿔뿔이 흩어져 양주를 거쳐 그 해 9월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왕산 허위선생은 그 뒤 임진강·한탄강 유역을 무대로 조인환(趙仁煥)·김수민(金秀敏)·김응두(金應斗)·이은찬, 연기호의 의병부대와 함께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이고 때 국노를 처단했다.

당시 왕산 허위의 의병부대는 임진강 연합부대를 조직하여 연천지역과 마전군, 삭녕군, 포천의 일부, 그리고 적성지역 등에 있던 거의 모든 일본군 주재소 및 면사무소 등 행정관청을 점령한 후 중앙정부(조선총독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의병이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세금을 거두고 의병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량 확보를 위해 지방인의 납세와 미곡의 반출을 금지시키고, 의병들의 군사훈련과

무기 제조를 통하여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1908년 2월에는 경기도 가평의 의병 4,000~5,000명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군수품을 만들고 유격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는 군표(軍票)로 조달하였다.

이때에 심상우 의병은 왕산 허위선생의 의병모집 격문을 보고 자진하여 의병에 입대하였고 이 부대에서 3분견대장(파견대: 派遣隊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소대장이나 중대장 급)이라는 직책을 맡고 부하들과 함께 일본헌병대와 경찰 주재소 등을 습격하며 크고 작은 접전을 벌이게 된다.

당시 연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총사령관 허위를 비롯해서 연기호, 이은찬, 김민수, 김연성, 황재호, 김관식, 박종환, 강기동, 심상우 등이 이끄는 부대들로 이들 의병부대들은 적제는 20~40명의 오늘날의 소대급 분견대와 60~70명 등의 중대급 분견대, 많게는 2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대대급 부대로 만일 적은 인원으로 싸운다면 일본군에 습격당하기 쉬워 이들은 항시 조를 짜고 단체 행동을 하였다.

이들은 구식 화승총이나 이를 조금 개조한 장전식 화승총 등으로 당시 일본군이 무장했던 연발총이나 신식총에 비해 장비 면에서 매우 열악했지만 이들은 일본 헌병분견대나 수비대, 주재소 등을 유격전방식으로 습격하여 많은 타격을 입히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일본군들을 괴롭혔다.

일본군 토벌대보다 열악한 무기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던 심상우 의병부대는 1908년 10월 15일 백석리의 가루재(금바위에서 두리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일본군과 격렬히 맞서 싸우다 동료,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을 하였으나 가루재 바위틈에서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연천군지〕 상권 364쪽) 가루재 고개를 넘으면 곧바로 두리산 이며 이 길로 해서 삭령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일본 헌병대와 싸우면서 솟 적 열세와 열악한 무기로 계속 밀리자 당시 삭령군의 의병들과 다시 집결하기 위해 이곳 가루재까지 온 것이 아닌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심상우 의병장의 어머니 양성 이씨는 피로 얼룩진 아들의 군복을 유촌리 앞 개천가에서 빨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결단코 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루빨리 조선이 독립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군들은 의병들을 마치 산짐승 몰이 하듯 몰아 붙였고 솟 적 열세와 구식 소총인 화승총, 단발총 등 무기의 열악함으로 인해 의병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으나 이처럼 필사즉생(必死即生)의 신념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다.

일본군의 흉탄에 맞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들의 피로 범벅이 된 자식의 군복을 빨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기 그지 없다.

당시의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개성부 관내에도 의병이 전에 비해 번성하여 마전군, 연천군, 삭녕군 등지에 의병장 연기호가 이끄는 부하 수 백 명이 출몰하여 일본 토벌대와 수차례 충돌하였는데 의병은 다갈색 복장을 하고 무기는 신식총, 단발총이 많으며 화승총도 각각 휴대하였다.] 라고 기사가 써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상우 의병장은 1908년에는 연기호가 이끄는 의병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같은 해 10월 31일자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본월 15일 마전군 서북방면 3리 신촌에서 의병 20여명이 분견대 헌병 2명 보조원 3명과 교전하였다.] 라고 기사가 써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전군 서북방면이라면 백석리로 추정이 되며 바로 이 기사가 심상우 의병장이 일본의 흉탄에 쓰러진 기사가 아닐까 추정된다. (당시 유촌리와 왕징면 무등리, 노동리도 마전군이였다.)

심상우 의병장의 묘소는 이준용 연천문화원장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진과 같이 말끔하게 정비 단장 되었으며 공의 묘소는 현재 지방문화재 제 24호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정비 전 심상우 의병장 묘소



연천문화원의 정비 후 묘소

종회탐방

두산정 보존회 (杜山亭 保存會)을 찾아서



심동섭 회장
두산정보존회

대중회 이사와 종보편집위원을 오래토록 맡고 있는 東燮 일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호 종보에는 일가들이 잘 모르고 있는 두산정을 취재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우리 대중회 상임 이사들은 일가들이 찾는 곳이면 원근

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든 달려갈 각오가 되어 있기에 지난 2월 23일, 토요일 천리길 진주로 沈東燮 회장을 찾아 나섰다.

두산정은 진주에서도 승용차로 30여분을 더 가야하는 합천 삼가면에 있다기에 채 날이 새기도 전인 새벽 첫 버스를 탔다. 새벽을 가르며 버스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가 싶더니 이내 3시간여를 달려 차창 밖에 함양 지나 산청 땅이다.

20여분의 일가들이 모두 나와 반겨주었다.

1. 이곳 두산정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건립 되었나요?

경남의 산청은 지후공 할아버지께서 목민관으로 계시던 고을인데 현감으로 계시다가, 함문지후 내직을 제수 받으셨으나 부임치 않으시고 이곳에서 돌아가셨고 묘소도 이곳에 있었다. 그러던 중 손자 되시는 정안공(諱 德符) 악은공(諱 元符) 형제분이 1377년 익산의 함열 남당산으로 이장하여 모시게 되었다.

공의 생졸(生卒)과 배위의 성관(姓貫)이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공의 묘는 호남의 함열현(咸悅縣)에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있는 곳을 몰라 실전되어 여러 대 동안 찾아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을유(乙酉:1705)년 종인(宗人) 규(圭)가 여산사람 김인(金麟)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조상 중에 벼슬이 함문지후가 있는가? 있다고 답하니, 묘소(墓所)를 알고 있는가? 알지 못 한다. 하니 나의선대 묘소가 함열에 있는데 그 옆에 고묘(古墓)가 있고 갈석에 성(性)과 휘(諱)와 자(字)는 무엇이며 쓴 자획을 알아 볼 수 있다. 인의 아버 응삼(應三)의 조상이 공의 묘소를 절취하여 이장한지 수세가 되었다, 후환이 두려워 공의 묘갈을 훼손하여 버리고 공의 지식은 못에 빠뜨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것을 옛본 사람의 말대로 숙종41년 을미(乙未:1715년) 봄 물을 따라내고 지석을 건져 모시니 돌의 길이는 팔촌(八寸)넓이는 사촌(四寸)이며 글씨가 세 줄로 쓰여 있었다. 중간에 함문지후심모(沈某)의 묘라 쓰여 있으며 좌측에 흘산(屹山) 아래 남당

으로 진좌술향(辰坐戌向)이라 쓰여 있으며 오른 쪽에 홍무십년(洪武十年:1377)정사구월이십일(丁巳九月二十日)장사 지냈다고 쓰여 있어 자각(字刻)이 완연하여 속일수가 없었다.

응삼과 인 등이 사실을 자백하고 숨기지 못했다. 남의 땅에 장사 지낸 것을 옮기게 하고 종친과 더불어 상하의 묘를 개봉(改封)하고 마렵(馬鬣)의 상(像)은 옛 그대로 하였으나, 갈명(碣銘)은 이미 훼손되어 찾을 수가 없어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증명 할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묘갈을 두 묘 사이에 세우고 옛 지석을 생석(牲石) 밑에 묻어 두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500여년의 세월이 흘러, 경남지역 10여개 문중 일가들이 뜻을 모아 1916 병진년에 지후공 선조를 기리는 화수회를 조직하고 이곳 삼가에 두산정을 건립하였으며,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에 아무런 흔적이 없음을 죄스러워 1934년에 유허비를 세웠다. 그러던 중 일가끼리 모여 선조를 추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먼 거리에 있는 함열까지 제향에 참석하기가 어려우므로 할아버지의 사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1976년에 두산정(杜山亭) 경내에 안분사(安分祠)를 건립하여 매년 음력 3월3일에 제향을 받들고 있다.

이후 강산이 10여회 바뀌고 100여년의 세월이 흐르자, 건물은 퇴락하고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기본유산이 없는데다 거액의 수리비를 마련치 못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02년에 沈義祚 후손이 합천군수에 취임하여 선조의 일에 성심을 다해, 2005년에 경상남도 문화재로 등록케 되었고, 총공사비 3억여 원을 투입하여 재실과 사당을 전면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집행부의 구성은?

처음 창립 때의 명칭은 어른들이 '두산정 화수회'라고 하였었는데 문화재로 승격한 2005년부터 「두산정 보존회」로 바꾸고 종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현재 고문은 義祚, 회장 東燮, 부회장 敬燮, 총무는 命圭이며, 감사 載仁, 載華이며 理事는 진주, 합천, 함안, 의령, 산청, 창원 등의 10여 문중 대표들로 구성하였으며 澤, 龍泰, 상봉, 증榮, 漢燮, 正燮, 成燮, 昌燮, 樂燮, 載和, 載尙, 재결, 載煥, 載文, 載旭, 載武, 載洙, 星昊, 종열, 광남, 哲輔, 윤상 등이 활약하고 있다.

3. 주요회의는?

정기총회는 매년 음3월 3일 향사 일에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한 일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어 모든 문제를 의논하여 처리하고 있다.

4. 두산정 보존회의 자랑이라면?

일가들이 화합하며 단결심이 강하다. 그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맺는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宗財가 全無한 상태에서 성금을 모아 두산정과 안분사를 건립하였으며, 근래에는 할아버지 제수비가 부족하자 모금운동을 하여 근 5천여만 원을 모은바 있다. 덕분에 할아버지의 음덕인지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시의원, 군의원, 우체국장, 전화국장, 성균관부관장, SBS보도본부장 등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니 큰 자랑이다.

5. 대중회에 건의사항은?

지금의 대중회는 매우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5층 2단소를 비롯한 송조사업, 대중회 발전위원회 운영, 젊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모바일 종보로 전환하려는 알찬 종보 발행, 600여년을 넘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안공 선조의 靑城齋 재각건립을 이 시대에 완공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더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재실과 사당을 짓고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 두산정 같은 열악한 종회에도 대중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산이 없으면서도 어려운 일가들이 십시일반으로 협조하여 선조님께 정성을 다하는 그 정신이 가늠하기 때문이다.

6. 취재를 마치며

두산정을 취재하기위해 아침식사도 할 틈이 없이 새벽에서 밤중까지 천리길 진주를 찾아 근 8시간을 차속에서 보내고 잠깐을 두산정에서 보냈지만, 일가들의 환대와 웅장한 두산정을 보며 뜨거운 희열을 느꼈다.

우리 모두의 몸속에는 지후공 선조의 따뜻한 피가 함께 흐르고 있으니 일가는 百代之親이라 했든가 훈훈하고 끈끈한 혈육의 정에 전혀 피곤함을 느낄 수 없었고 "역시 잘 왔구나."하는 흐뭇함을 느꼈다. 지후공의 유택이 함열로 떠나자 구심점을 잃고 허탈감에 빠졌던 경남지역 일가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합천 삼가의 두산정. 지후공 할아버지의 유훈을 지키며 代를 이어 영원히 보존하기를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취재·대담·글 : 甲澤 문화이사)



두산정



안분사



종회탐방 기념사진

2019년도 춘계향사일 안내(春季 享祀日 案内)

대종회 주관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장 소 (주차장)
시조(始祖)	文林郎公(諱:洪孚)	04.06	한 식	토	경상북도 청송군 덕리 산33. 보광사
	中臺山墓所	04.06	한 식	토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二	閭門祗候公(諱:淵)	04.15	03.11	월	전라북도 익산시 합남로626. 남당산
三	靑華府院君(諱:龍)	04.17	03.13	수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290-3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04.17	03.13	수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1
四	靑城伯(諱:德符)	04.19	03.15	금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554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04.21	03.17	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8.계룡리슈빌204동
	岳隱公(諱:元符)	04.29	03.25	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271. 경의재(景義齋)

조선왕릉 제향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장 소 (주차장)
王 后	昭憲王后(세종비)제4대	04.28	양력 고정	일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901-3.영능(英陵)
	仁順王后(명종비)제13대	04.07	4월첫째.일	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727. 강능(康陵)
	端懿王后(경종비)제20대	03.08	양력 고정	금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66-23동구능.혜능(惠陵)
	淑容沈氏	04.21	4월셋째.일	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6(구 진관외동)
	世宗大王	04.08	양력 고정	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 영능(英陵)
	宗廟大祭	05.05	5월첫째.일	일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1-2(종로3가 종묘)

소종회주관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장 소 (주차장)
五	安孝公(諱:溫)	04.06	한식고정	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04.18	3.14고정	목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六	良惠公(諱:石檣)	04.24	3.20고정	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표곡읍 가실리19
	恭肅公(諱:會)	04.09	양력 고정	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233-2

100년 前 안효공 묘소에서 山訟이 있었다 淸川府院君 安孝公 祀孫 前 靑陽郡守 生 沈在淑 等 訴狀

(청천부원군 안효공 사손 전 청양군수 생 심재숙 등 소장 번역문)

저희들의 十六世祖의 淸川府院君은 곧 우리 세 종대왕의 국구(國舅 임금의 장인)로서 묘소가 관내(官內) 용인군 교내면 산의곡(龍仁郡 校內面 山義谷)에 예장된 사패지(賜牌之地 나라에서 내려준 땅)이며 四百年 동안 아무 폐단 없이 수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경자년에 이웃 동리(洞里)에 사는 김윤여(金允女)가 선산(先山)으로 이어지는 지경(地境)에 밤을 틔타 그 아비를 저희들 先祖의 주산으로 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암장(暗葬)하였기 때문에 분노(憤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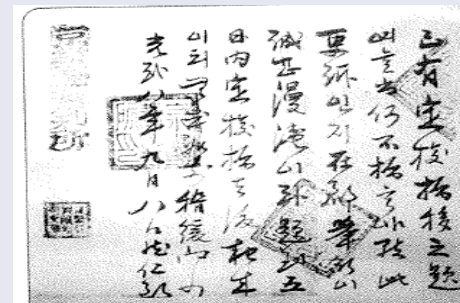
함을 참지 못하여 부(府)나 군(郡)에 진정서를 올려 묘소를 파서 옮기라는 공문도 내려졌고, 또한 저들에게 기한을 정하여 관청의 다짐에 응하도록 한 것이 세 번이나 되었어도 묘소를 파서 옮기는 것을 가을에는 봄으로 미루고, 봄에는 여

름으로 미루는 등 오직 일에 바쁘다는 핑계만 하고 끝내 묘소를 파 옮기지 아니하니 어떻게 엄중한 신칙(申飭) 아래서 저와 같이 미련하고 악(惡)한 습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욱 심하므로 이에 다시 서한을 선후 소장에 맞추어 미워하고 성토했으며 일제히 관찰사에게 부르짖으며 하소연 하니, 옳되 바라옵건대 자세히 살피신 뒤에 엄중한 훈계를 내리고 순경(巡警)을 파견하여 이른바 김윤여가 암장한 무덤을 즉각 파서 옮기게 하고 대대로 선산(先山)을 수호하고, 영원히 뒤에 있을 폐단을 막도록 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前參政 沈相薰, 前判事 在昇, 隆陵令 宜惠, 前郡守 宜春, 前主事 宜昇
光武八年甲辰七月 日(西紀一千九百四年七月 日) 龍仁郡

판결문(번역문)

이미 올바르게 묘소를 파 옮기라는 공문을 보냈거늘 어찌하여 아직까지 묘소를 파 옮기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소장을 내게 한 것인지 군에서는 일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지라 공문을 또다시 보내니 공문이 도착하는 오일 이내에 올바르게 묘를 파서 옮긴 뒤에 보고하여오되 혹여 전과같이 지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따름이다.
광무팔년 구월팔일 용인군
(光武八年九月八日 龍仁郡)



판결문 원본

각종찬조현황 2019. 1. 26 ~ 2019. 3. 25

임원회비

18년도 임원회비 50,000 재만(파주), 우흥(강원), 상우(김포)
19년도 부회장회비 300,000 상우(광주)
이사회비 50,000 대섭(전북), 형구(강서), 상복(청송), 길택(청송), 석희(경기)
응하(경기), 석용(경기), 석문(인천), 재석(인천), 현석(대구), 재중(대전), 규일(경기)
극택(경기), 영보(서울)

장학찬조

1,200,000 심재금(서울)
100,000 신천공파총회(회장 윤섭)

중보찬조

500,000 정이공어비리총회(회장 석문)
100,000 언촌(수원)
신천공파총회(회장 윤섭)
60,000 강채(전남)
20,000 민성(안동), 승식(의정부)

■ 중보·장학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재금 (대회이사) 정이공어비리총회 (회장 석문) 부사공총회 (회장 재문) 심정보 (원주총회 고문) 진천월촌총회 (회장 상영)

장학찬조 120만원 2019년3월 중보찬조 50만원 2019년2월 중보·장학찬조 200만원 2019년1월 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12월 중보·장학찬조 60만원 2018년12월

2018회계년도 정기감사 실시

대중회 정관 제28조에 의거 2018회계년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다.

일 시 : 2019년 1월 31년 (목)
오전11시~오후6시

장 소 : 대중회 회의실

감사내용

- '18년 사업실적 및 결산
- '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 유동자산 확보 및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 재무제도 개선 방안 등

**경종대왕비 단의왕후 301주년
기신제 봉행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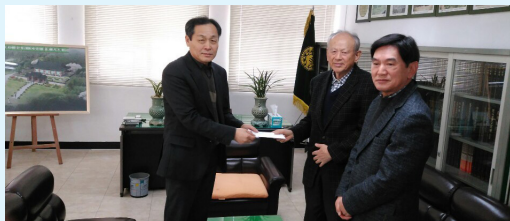
아헌관: 동섭(김포군수공파 부회장)

**6세조 휘:회(諱:澮) 공숙공기신제
봉행 ('19.2.16 오후7시)**



초헌:규훈(종손) / 아헌:총택(회장)
중헌:상열(관공중회장) / 대축:홍섭
집례:광섭

장학성금 기탁



지난 3.13일 심재금(서울) 대중회이사는 대중회를 방문하여 장학기금으로 1백2십만원을 기탁하였다.

청보산회 산신제 ('19.3.3)



청보산악회(회장 인보) 회원 18명은 아차산에 올라 올해한 한해 회원들의 안전한 산행과 건강을 비는 산신제를 모셨다.

송금 안내

임원회비 · 종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

인수부윤공파 정기총회 및 망세정공(諱:璿) 재각 준공식

인수부윤공파 망세정공(諱:璿) 제향과 정기총회 및 재각 준공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19.4.27 토(음3.23) 총회12:00 (제향11:00 /준공식11:30)

나. 장 소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25-1 망세정공 재실

다. 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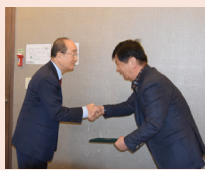
- 2018회계년도 결산 보고 및 승인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임원개선 건, 기타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총회 회장 심 정 구

승진 발령

대구중회 심우정 회장의 장남인 심병직씨가 제주지법부장관사로 승진발령('19.2.25자)

위 축



2월15일 대중회부회장 위축 심상우 (5세조 판사공중회장, 광주)

조합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성 명	조합명
심재집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심상승	노안농업협동조합
심복규	동충주농업협동조합
심철효	진주중부농업협동조합
심진섭	원주원에농업협동조합
심재이	충주산림조합
심재광	강릉시산림조합

3·1절 100주년 기념

청송의병장 소류 심성지 선생 추모행사 열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일 (금) 청송 덕천마을에서 청송의병장 소류 심성지(沈誠之) 선생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소류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소류정에서 추모제, 만세삼창, 추모강연, 유품전시 및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의병장 소류 선생은 지난 1896년 병신창의 당시 조선의 국모(國母) 명성왕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되자 이에 분개한 우리 민족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의병을 창의하였다. 당시 청송지역에서도 향중의 유림들이 모여 의병창의를 모의하고, 창의장으로 선생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안덕 감은리 전투 등지에서 일제에 항거하면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덕천마을은 청송 의진의 창의장 이었던



소류 심성지 선생을 비롯하여 당시 11인의 선열들이 의진에 참가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섰으며, 1592년 입진란당시에는 벽절공(碧節) 심청(沈淸)선생이 의병에 참가하여 울산 도산 전투에서 순직하는 등 현재 마을단위로 경북지역에서 독립유공자 12명(애국지사 포함)을 최다 배출한 대표적인 충절(忠節)의 마을로 알려져 있다.

기사 정정

지난 호(제135호) 제8면에 4세조 청성백 정안공 선조님의 "묘역과 신도비각"이 「연천군 향토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연천 덕섭 일가를→연천 덕보 일가로 정정합니다.

지난 3월19일 대중회 회의실에서 모바일중보 활성화를 위한 전국 웹진관리자 설명회 및 논의가 있었다.



공지사항

- 1) 청송신문 지·과중회의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오니, 각 지·과중회는 대중회 홈페이지 "대중회 소개-중회결성 및 변동사항" 메뉴에서 서식을 출력(작성)하여 대중회 팩스(02-2269-77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과중회 결성 및 임원(회장, 총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중회에 즉시 통보요망
-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중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종보찬조 지료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중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중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중회는 감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 5) 대중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대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